데스크 시각

‘ACC 야외 쉼터’가 반가운 까닭은

박 진 현
문화·예향담당 국장

유럽의 도시들을 여행하다 보면 부러운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100년을 훌쩍 넘은 건축물, 세기의 명작들로 가득한 미술관, 햇볕을 쬐며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노천카페들이다. 국내에선 쉽게 볼 수 없는 이국적인 풍경은 이방인의 마음을 설레이게 한다.

하지만 기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 따로 있다. 번잡한 도시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공원과 벤치다. 수많은 인파와 온갖 소음들로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질 무렵, 마치 사막 한 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마냥 반갑다.

3년 전, 취재차 방문한 체코의 프라하가 그랬다. 동유럽의 보석으로 불리는 체코의 프라하는 세계적인 관광지라는 명성과 달리 ‘정겨운 동네’ 같았다. 프라하의 예술가 공간들을 둘러 보느라 하루에 2만 보 이상을 걷는 빡센 일정이었지만 피곤함을 느끼기 힘들었다. 바로 도심 속 공원과 벤치 덕분이었다.

삶의 질 높이는 공원과 벤치

기자가 머문 숙소에서 5분 거리인 공원은 멍때리기의 최적지였다. 연못 앞 벤치에 앉아 사색을 하거나 잔디 위에 엎드려 책을 읽는 시민들의 모습은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독일의 문화도시로 꼽히는 뮌헨은 프라하와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 관광 1번지인 마리엔 광장에는 유독 벤치가 눈에 많이 띄었다. 일년 내내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북적이지만 핫플레이스 앞이나 도로 옆에 자리한 벤치에 앉는 순간, 호젓한 숲 속으로 들어가는 듯 했다. 흡사 고즈넉한 카페에서 창밖을 보며 활기찬 거리의 풍경을 감상하는 것 처럼 말이다.

얼마 전, 광주에서 이들 도시와 오버랩되는 현장을 목격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장동 로터리 사이에 들어선 ‘야외 쉼터’다. ACC가 도심 속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40여 개의 나무 탁자와 벤치들로 꾸민 이 곳에 10여 명의 시민들이 앉아 대화를 나누며 망중한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야외쉼터 앞에 설치된 7.2m 높이의 화강석 조형물 ‘ACC 마운틴’(우고 론디노네 작, 2017년)을 신기한 듯 바라봤다.

지난해 9월 광주 북구 중외근린공원에 둥지를 튼 ‘아시아 예술정원’(5만6200㎡ 부지)도 비슷한 곳이다. 지난 2020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비엔날레, 예술의 전당, 역사민속박물관 등 지역의 대표 문화시설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총 사업비 190억 원을 들여 완공한 녹색공간이다.

메인 시설인 ‘미술관 옆 문화정원’은 아시아 경관을 테마로 중앙아시아 초지 경관을 모티브 삼은 그라스 가든, 서아시아 사막을 재현한 드라이 가든, 동남아 우림을 표현한 쉐이드 가든 등으로 꾸며졌다.

사실, 도시의 품격은 화려한 인프라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다. 굳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카페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숲이나 공원, 벤치 등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소소한 공간’들이 많아야 ‘살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서울시와 경기도가 ‘걷기 좋은 도시, 서울’, ‘쉼이 있는 도시공간’을 내걸고 산책로와 공원, 벤치 등을 늘리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광주는 ‘아시아의 문화허브’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삭막하기 짝이 없다. ‘광주의 랜드마크는 아파트’라는 쓴소리가 말해주듯 도심 곳곳은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된 수천 세대의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서 도시 미관을 헤치고 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최근 광주시가 ‘도심 속 공원’을 모토로 최대 도심 공원인 중앙근린 공원을 전국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서구 금호동·화정동·풍암동·남구 주월동 일대를 아우르는 중앙근린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공원도시 광주’라는 브랜딩과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어서다.

공원도시, 문화광주의 미래다

특히 광주는 무등산국립공원과 무등산권국가지질공원, 국가도시공원 등 3대 국가공원을 보유한 유일한 도시로, 만약 국가공원 지정을 통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유산을 인정받는 다면 도시공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다.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력과 행정역량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초, 광주시는 지역발전 3대전략을 ‘인공지능(AI)·문화·서남권 시대’로 설정하고 각 당의 대선 전략에 반영할 ‘광주공약’을 제안했다. 이들 3대 공약은 광주의 미래 먹거리라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 ACC의 도시, 비엔날레 도시, 노벨상의 도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등 ‘팔색조’의 광주는 이들 역사·문화자산을 도시발전의 성장축으로 활용한다면 경쟁력 있는 글로벌 문화도시로 거듭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메가 프로젝트나 최첨단 미래 산업이 꽃을 피우기 위해선 삶의 질을 높이는 공원이나 광장, 벤치 등을 확대하는 도시 공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중앙근린공원이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대선 공약과 연계시키는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공원도시 광주’는 문화도시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은펜칼럼

우리는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까

고 성 혁
시인

시골인가 산골인가. 화순군 춘양면 부곡리 1구. 여름으로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는 봄비 그친 마당에서 부남이를 바라보고 있다. 부남이. 부남이는 부곡리의 첫 글자를 따 이름 지은 수컷 진돗개고, 집 위쪽 산자락에 있는 곡순이는 부곡리의 두 번째 글자를 따 이름 지은 암컷 진돗개. 부남이는 땅바닥에 누워 졸고 곡순이는 제 집 문턱에 고개를 눕힌 채 자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피고 진 진달래와 개나리 사이 목련과 살구꽃이 피었다졌다. 시든 꽃들을 대신하여 피는 또 다른 이팝나무 하얀 꽃 이파리가 천지사방에 너울거리는 봄. 다시 오월이 왔다. 햇볕과 후회 사이를 세월이 물결처럼 스치고 있다.

녀석들을 데리고 이곳에 들어온 지 십일 년이 넘었다. 녀석들 사람 나이로 치면 얼마쯤 될까. 우리 부부와 이 녀석들은 어떤 인연으로 묶인 것일까? 짖기는커녕 문턱에 누워 아픈 몸을 뒤척이는 녀석들을 보노라니 삶의 유한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풀을 뜯고 마당에 풀물을 토했던 녀석들을 생각한다. 방울을 딸랑거리던 녀석들의 장난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었다. 강물을 끼얹으며 아기처럼 함께 놀던 천진무구와 하얗게 콧김을 내뿜으며 힘차게 겨울들판을 달리던 본능적 질주와 땔감으로 쓸 나무토막을 함께 끌고 내려오던 산중의 파안대소를 기억한다. 아, 녀석들과의 추억들이 절절한 봄 마당. 함께 다녔던 산과 강변과 벌판의 풍경은 그대로인데 어찌하여 시절은 이리 조급한 것인지.

어느 겨울, 빈 들판에 목줄을 풀어주자 녀석들이 사라졌다. 녀석들은 일주일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지만 대전에서 진도까지 집을 찾아온 전설의 진돗개 후손이니 곧 집 마당에 들어설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끝내 소식이 없었고 결국 전단지를 만들고 마을 앰프방송을 하고서야 산 넘고 물 넘은 한천면에서 녀석들을 붙잡을 수 있었다. 돌기둥에 묶인 부남이의 몰골은 흉흉했다. 찢어진 얼굴에 피가 말라붙었고 다리까지 절뚝였다.

그런데 그런 부남이에게 암컷 하나가 착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닌가. 그새 부남이를 사랑한 녀석이 생긴 것이다. 따로 떨어져 있던 녀석의 아내, 곡순이를 달래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일로 틀어졌는지 녀석들은 그 후 단 한 번도 부부의 연을 맺지 않았다. 그 얼마 후에는 곡순이가 집을 나갔다. 큰길 건너 숲속에 있는 수도원에서 녀석을 찾았는데 신부님이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몇 번이나 풀어줬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짖으면 안 되는 수도원이라 어쩔 수 없이 유기견 보호소로 보낼 참이었는데 때맞춰 오셨네요.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우리 때문인가, 아니면 부남이 때문인가. 아,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제 그 좋아하던 생닭도 먹지 못해 고개를 내젓는 곡순이. 흐르는 시간 앞에 모든 게 속절없을 뿐이다. 다음 생엔 부디 목줄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이놈들의 병든 몸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부남이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자꾸 부딪쳐 넘어지고 곡순이는 부기 때문에 뒷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이렇게 좋은 날 꿈쩍 않고 누워만 있는 녀석들을 보노라니 가슴이 아프다. 모든 게 내 탓이다. 그동안 나의 비정함이 녀석들을 병들게 했다. 나의 늙음으로 녀석들의 늙음을 등한시했다. 아니 녀석들의 치료비와 치료 과정의 힘듦으로 녀석들을 못 본체한 나의 비루함이 녀석들을 저리 만들었다. 미안하고 미안하다. 젊은 날의 오월과, 녀석들의 병듦까지 상처가 돼 가슴을 짓누르는 봄. 내 삶의 동반자가 아니라 내 고독의 배출구였으니 너무나 매정한 짓이었다. 너희의 비애와 고통을 어찌할거나…. 이 풍경을 기억할게, 이별의 그날까지 너희 두 눈을 바라볼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러본다. 부남아, 곡순아….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김광섭 시 ‘저녁에’ 전문)

다시 온 오월, 사람 노릇 부족했던 그날이 되살아나 이 봄볕 아지랑이처럼 어른거린다. 그리하여 이 아픈 오월에 세상과 멀어지고 있는 너희를 바라보며 목이 멘다. 부남아, 곡순아. 정말로 미안하다. 비 그친 세상은 이렇게 찬란한데 유한한 우리 삶은 어찌하여 이리도 쓸쓸한 것이냐.

기 고

스승 존경 풍토 조성과 교권 확립

이 동 범
수필가·교육 칼럼니스트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1958년 5월 강경여고의 동아리 청소년적십자단(RCY)은 퇴직 선생님과 현직 선생님을 방문했다. 청소년적십자 충남협의회는 강경여고 청소년적십자단의 활동을 뜻깊게 생각하고 1963년 9월 21일을 충남지역에서 ‘은사의 날’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1965년에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다. ‘세종실록’ 1권 총서에는 ‘태조 6년(1397) 4월에 한양 준수방 잠저에서 탄생하셨으니’라는 탄생기록이 있는데 음력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이 바로 5월 15일이어서 이 날로 정한 것이다.

스승의 날을 국가에서 정한 의도는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의 입지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다. 그러나 최근 선생님들은 스승의 보람으로 즐겁게 축하를 받아야할 텐데 학교 현장은 그렇지 못해 아쉬움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 학교의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스승의 설자리가 위태로우며 일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선생님을 보는 오늘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 조상들은 스승을 ‘군·사·부 일체(君師父一體)’라고 했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숭고한 스승 존경 풍토가 오늘날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최근 들어 스승을 하늘처럼 받들어 모시는 우리의 오랜 전통이 퇴색되어가고 있음을 볼 때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교단의 위상이 추락하여 교권이 실추됨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2년 전 서울 서이초등학교 새내기 교사의 죽음은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참으로 처참하고 참담한 일이다.

이쯤 되면 교권을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하다. 선생님을 교사가 아닌 고용인 취급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자녀의 잘못을 모두 선생님께 뒤집어씌운 것이 아닐까.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교권확립이 절실함을 느낀다.

일부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불신과 잘못된 인식 때문에 공교육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학부모나 학생들의 눈치만 보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등 진정으로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선생님들은 힘을 얻어 신바람 나는 교육을 하게 되고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공교육이 정상화 되리라 믿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이나 또는 각급 학교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학부들 역시 학교나 선생님을 보는 시각이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선생님들은 교사의 직업이 성직(聖職)임을 알고 오직 학생교육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선생님들 자신이 학생과 학부모 앞에서 떳떳하게 교육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참된 스승의 길을 갈 수 있는 품격과 자질과 소양을 갖추어 스승의 자리를 되찾는 일이 절실하다고 본다.

바로 교사는 고매한 비전을 높이 들고 그가 맡은 어린 생명의 올바른 성장을 도움으로써 학생의 잠재한 가능성을 개발하여 풍요한 생활을 영위하게 한다. 이를 통하여 나라와 겨레와 인류의 발전을 돕는 길이라는 신념을 가진다면 분명 교육은 노동의 영역을 뛰어 넘어 희열의 원천이 될 것이다.

스승을 존경하고 교권이 바로 서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어 공교육이 활성화되고 정상화 되리라 믿는다. 여기서 우리 조국은 교육입국(敎育立國)으로 자리잡게 되어 우리들의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스승의 길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社 說

계엄과 노벨상이 띄운 5·18 관심 세계화 계기로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광주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전국에서 젊은이들은 물론 외국에서도 ‘광주정신’을 체험하려는 사람들이 광주를 찾고 있다.

망월동 국립 5·18민주묘지 방문객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올해 5월 10일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30% 가량 늘었다고 한다. 특히 2022년 2140명에 머물던 외국인 참배객은 지난해 5047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4월까지만 해도 95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나 증가했다.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의 텐트에서 숙박하며 5·18을 체험하는 ‘오월 텐트촌’ 등 각종 5월 행사 참가자도 크게 늘고 있다. 2030 젊은이들은 시민군 버스를 복원해 사적지 투어에 나서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5·18을 기억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5·18이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촌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민주주의의 소중함 때문이다. 45년 전 비상계엄하에서도 신군부의 군사독재에 항거해 민주주의를 이룬 5·18 정신을 되새기려는 움직임이다. 5·18을 배경으로 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것도 광주로 발길을 끄는 원인이다.

5·18의 숙명과도 같은 과제 가운데 하나가 전국화와 세계화다. 5·18을 광주만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은 물론 지구촌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노력을 해왔지만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계엄과 노벨상이 띄운 5·18에 대한 관심이 ‘민주·인권·평화’라는 광주정신을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촌에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광주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을 따뜻한 가슴과 환한 웃음으로 맞고 5·18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민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질적인 농번기 일손 부족 물가 상승 부추길라

봄철 농번기(4~6월)를 맞아 전남지역 농촌의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의 일손 부족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해가 갈수록 일손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지고 있어 문제다.

한창 수확기를 맞은 양파 농가의 경우 중만생종 양파 수확시기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력을 구하지 못해 한 숨을 쉬고 있다. 무안에서 3ha의 양파 농사를 짓는 최모(62)씨는 수확 때는 최소 15명이 필요한데 마을 주민 대다수가 노인이라 힘쓸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 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번기 수요 인력은 매년 10% 가량 늘고 있다. 올해도 4~6월 농번기 필요 인력이 92만5000여명(연 인원)으로 지난해 84만1000여명보다 10% 늘었다. 전남도는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필요 인력의 60% 가량인 55만5000여명을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공무원 및 대학생 등 농촌봉사활동 인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일손 부족을 메꾸는 주 인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다. 전남도가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외국인 계절근로자광역센터, 전남형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외국인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고정적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주여건 개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당장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농번기 일손 부족은 농산물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라는 점에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농산물이 고물가의 주범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농산물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쳐 농민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본적으로는 젊은층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 마련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오월 찔레꽃

‘하얀 꽃 찔레꽃/ 순박한 꽃 찔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놓아 울었지’

한국인의 정서를 가장 잘 대변해준다는 평가를 받는 소리꾼 장사익의 노래 ‘찔레꽃’의 가사 일부다.

장사익은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5월에 피는 찔레꽃을 보며 몰려오는 슬픔과 애환을 노래에 담았다. 이 노래를 들으면 찔레꽃의 은은한 향기가 온 동네를 휘감아 돌고 덤불을 뒤덮은 꽃은 밤하늘 별처럼 빛나는 상황에서 그가 느꼈을 서러운 감정이 그대로 전달돼 찐한 감동이 몰려온다. 이 시기 만발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미에서 발하는 감정과는 사뭇 다르다.

가사에 나오는 찔레(학명 Rosa multiflora)는 전국의 산과 들의 기슭과 계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낙엽활엽관목이다. 장미과에 속하는 키 작은 나무로, 높이는 1~2m이고 가지가 많이 갈라지며 가지에는 예리한 가시가 있다. ‘찔레’라는 이름도 가시가 있어서 만지면 찔리는 데서 유래했다. 가지에 달린 5~9개의 작은 잎은 서로 어긋나 있으며, 잎은 2~4cm 길이의 타원 모양이고 양 끝이 좁고 가장자리에 잔 톱니가 있다. 야생 장미의 일종으로 원예종으로 개량할 때 대목(접을 붙일 때 그 바탕이 되는 나무)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는 장미의 어머니 나무라 할 수 있다.

찔레꽃하면 오월 아픔을 노래했던 도종환의 시도 눈길을 끈다. ‘그 많은 죽음들 때문에/ 꼭 부활을 생각케 하는/ 죽은 자에게도 산 자에게도 잊혀질 수 없는/ 또 다시 찔레꽃 피는 오월의 아침입니다’로 끝나는 시 ‘오월아침’이다. 시인은 5월 어느 날 하늘색 옷을 입고 할머니와 함께 유치원 가는 아들의 뒤를 따라 출근하다 찔레꽃을 보고, 1980년 광주에서 서럽게 죽은 자들의 영면과 부활을 맞이했던 듯하다.

어김없이 5월이 왔고, 찔레꽃 향기는 더욱더 진해졌다. 민초들의 삶에 담긴 애환이 서려 있음이다. 찔레꽃을 다룬 노래와 시를 보면, 5월 우리 산하 지천에 널린 게 꽃인데 유독 찔레꽃에 꽂히는 이유가 자명해진다.

/김대성 전남 서·중부 전북 취재부장 big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